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허정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eong-Cheol Heo(jcheo@kw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여, 자녀들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위해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인식할 때, 진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며,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인식할 때 진로 의사결정을 의존적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들이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들이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중심어** : 양육태도 | 의사소통 | 진로 의사결정 유형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what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to present mothers' desirable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fathers' communication types for reasonable Career Decision-making. As a result, when adolescents perceived mothers' parental Rearing Attitudes negatively, they tended to make dependent decisions. Fathers' open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reasonable decision while their trouble-type communic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dependent decision.

■ **keyword** : Parental Rearing Attitudes | Communication |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

I. 서론

청소년기는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나 학과 그리고 직업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현명한 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1][17][31][24].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로 성, 학년, 연령, 지능, 흥미, 자아개념,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지각된 대인관계, 중요하게 인식되는 타인,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

준, 부모나 본인의 직업포부수준, 사회적 가치와 규범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구조적·심리적 환경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5][23][25]. 특히,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9][19].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청소년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진로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직업이나 인생의 목표와 같은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어 대체로 어머니보다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직업을 접하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 못지않게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여, 자녀들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위해 바람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양육태도

1.1 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사회체계이며,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적 행동양식을 배워나가는 최초의 학습장소이기도 하다. 그 사회에서 아동이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대상인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자이다. Fishbein와 Aizen(1975)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이라고 하였다. 남상인(1983)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부모나 양육자가 어떤 의도로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김영숙(1988)은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규적 행동 및 특성을 의미하며 지적, 정서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양육태도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 정의 하였다.

1.2 양육태도의 유형

Hurlock(1978)은 양육태도를 부모의 기대, 지배, 거부, 허용, 과보호, 수용, 복종, 관대, 편애적인 태도로 나누었으며,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 역할의 유형을 4차원 즉,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의 욕구와 소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권위적, 욕구표현을 제한하고 부모 권위에 도전하는 아동을 억압하는 독재적,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아동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지 않는 허용적, 아동의 요구를 거부·무시하고 지도나 훈육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적 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4].

부모의 양육태도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의 하나이다. 먼저 한종혜(198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또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 등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

울-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육태도로 양극화시켰다. 김영숙(198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불일치 태도 등 5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홍성흔(2002)은 양육태도를 온정성,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순명(1993)에 의한 분류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애정, 이해, 존중 등으로 표시되는 수용적 태도)과 거부(무시, 학대, 무관심 등으로 표시되는 거부적 태도)로 분류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근거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 조사 하였다.

2. 부모 의사소통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부모-자녀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반응적 과정이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방식에 따라 구분한 Barnes와 Olson(1982)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 1) 개방형 의사소통 :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있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바람직한 의사소통 유형이다.
- 2) 문제형 의사소통 :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있어 의사교환 및 주제 선택에 있어 조심, 주저 혹은 회피함,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 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거리감이나 벽이 느껴지는 의사소통 유형이다.

3. 진로의사결정유형

Harren(1979)은 의사결정유형을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개인의 특징적 유형, 또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향자, 1993). Arroba(1977)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진로의사결정 상

황에 반응하는 독특한 개인의 접근상의 방법이라고 정의하며,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무사유형(No Thought), 동조형, 논리형, 감정형, 직관형, 주저형 등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결론지었다. Krumboltz와 Scherba(1982)도 합리적, 충동적, 직관적, 의존적, 운명론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며, 대체로 의사결정 전략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Harren(1979)은 Dinklage가 분류한 의사결정유형을 개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에 기초하여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 세 가지로 재분류하였다[1]. Harren(1984)은 진로와 관련지어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 진로의사결정검사 척도)를 개발하여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합리적 유형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진로의사결정유형이 구분되었지만, Harren(1979)의 유형이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합리적인사결정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유형임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의존적의사결정유형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직관적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다 [10][23][20][27][30][13][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rren(1979)이 제시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과정을 진로의사결정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의 특징적인 의사결정 형태를 진로의사결정유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세 가지 유형가운데 합리적 유형과 의존적 유형만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직관적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리적 유형은 자신과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가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자신이 진다. 하지만, 의존적 유형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며 타인의 권위나 기대, 인정에 이끌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의존적 유형을 만족스럽지 못한 유형으로 판단하여, 청소년들이 만족스럽고 확실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4. 부모 양육태도와 진로 의사결정 유형

송양호(1999)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결정 유형 사이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 때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과 정적 상관이 있고 거부적일 수록 의존적 의사결정 유형과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우현주(2003)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관계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 때 자녀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실제적,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조현진(2003)은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의사결정 유형 연구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며,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의존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김상룡(2003)은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 양육 태도와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인 경우 진로 의사결정 유형의 합리적 유형이 가장 많았고,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인 경우 의존적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선(2008)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 일수록 자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5. 부모 의사소통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연구[19]에서 고등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유형의 진로 의사결정을 하여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연구[7]에서 부모-자

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유형의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아버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신(2008)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며,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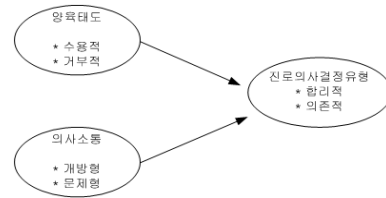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그림 1]의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모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합리적진로 의사결정}(y_1) &= \beta + \beta_1 X_1 + \beta_2 X_2 \\
 &\quad (\text{수용적양육태도}) \quad (\text{거부적양육태도}) \\
 \text{의존적진로 의사결정}(y_2) &= \beta + \beta_1 X_1 + \beta_2 X_2 \\
 &\quad (\text{수용적양육태도}) \quad (\text{거부적양육태도}) \\
 \text{합리적진로 의사결정}(y_3) &= \beta + \beta_1 X_1 + \beta_2 X_2 \\
 &\quad (\text{개방형의사소통}) \quad (\text{문제형의사소통}) \\
 \text{의존적진로 의사결정}(y_4) &= \beta + \beta_1 X_1 + \beta_2 X_2 \\
 &\quad (\text{개방형의사소통}) \quad (\text{문제형의사소통})
 \end{aligned}$$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수용적 양육태도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거부적 양육태도는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개방형 의사소통은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의 표본은 고등학교 남녀 1~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설문조사는 2009년 5월 11~30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학교의 협조를 구한 뒤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총 500부를 배부하여 47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 무응답 문항이 많은 설문지 39부를 제외한 436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측정도구

4.1 부모양육태도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권순명(1993)연구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Rohner(1980)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 척도 60문항 중 우리 문화와 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수용-거부 차원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1점에서 5점까지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수용적 양육집단과 거부적 양육집단 각각 5점-2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적 양육태도(1, 3, 5, 7, 9문항), 거부적 양육태도(2, 4, 6, 8, 10문항)의 2개의 하위영역을 사용하였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운데 어머니의 양

육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4.2 부모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Olson과 Barnes(1982)가 개발한 PAC(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를 국내에서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내용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하위요인인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하위요인인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은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소통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있다 [40][3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14개의 항목은 개방형 7항목(1,2,4,7,9,11,13)과 문제형 7항목(3,5,6,8,10,12,14)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써 각각 7-35점의 범위로 나타난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하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의 문제가 적음을 의미한다.

4.3 진로 의사결정 유형

진로 의사결정 유형 검사는 학생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용하는 전략을 측정하는 것으로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검사 척도(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 ACDM)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결정 유형 검사를 고향자(1993)가 번역·수정 보완하여 원래의 예/ 아니오 형식을 4점 척도로 변경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1, 2, 7, 9, 10, 13문항), 의존적 유형(3, 4, 5, 6, 8, 11, 12, 14문항)의 2개의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직관적 유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23][10][20][27][30][13][25]. 본 연구에서는 총 14개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을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독립변수의 변화로부터 종속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측정도구의 검증

[표 1]처럼 요인적재값이 0.5 이상인 2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6개 요인이 56.514%를 설명하였다. 29개 항목들이 6개의 가설된 요인들로 명백하게 분리되었다. 이 결과는 6개의 개념들이 경험적으로 구별 가능한 구성요소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표 1]과 같이 각 요인들의 Cronbach's Alpha(α)값이 모두 0.7이상 이어서 모두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명 / Alpha(α)	요인 적재량	아이 겐값	분산 비율	누적분산비율
제1요인 (합리적진로의사결정) $\alpha=0.8051$.738 .734 .720 .708 .632 .626	3.199	10.662	10.662
제2요인 (의존적진로의사결정) $\alpha=0.8044$.783 .757 .724 .705 .668 .525	3.134	10.446	21.108
제3요인 (개방형 의사소통) $\alpha=0.7900$.803 .736 .615 .592	2.907	9.691	30.800
제4요인 (수용적)	.718 .715	2.875	9.582	40.382

양육태도 $\alpha=0.8144$.711 .639 .606			
제5요인 (거부적 양육태도) $\alpha=0.7445$.778 .694 .687 .625	2.495	8.316	48.698
제6요인 (문제형 의사소통) $\alpha=0.7566$.738 .700 .680 .620	2.345	7.816	56.514

2. 연구가설의 검증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설검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설 검증결과 요약

가설	Beta	표준 오차	t값	P값	채택 여부
수용적양육→합리적	.267	.043	5.461	.000	채택
거부적양육→의존적	.218	.043	4.414	.000	채택
개방형의사→합리적	.234	.039	4.756	.000	채택
문제형의사→의존적	.156	.040	3.122	.002	채택

** p<0.05

첫째, 수용적 양육태도는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67, 표준오차는 0.043, 유의수준 p<0.05에서 t값이 5.461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수용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들이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거부적 양육태도는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18, 표준오차는 0.043, 유의수준 p<0.05에서 t값이 4.414이며, p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들이 의존적 진로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도 채택되었다.

셋째, 개방형 의사소통은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에 정

(+)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234, 표준오차는 0.039, 유의수준 $p < 0.05$ 에서 t 값이 4.756이며, p 값이 0.000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 자녀들의 진로 의사결정의 합리성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156, 표준오차는 0.040, 유의수준 $p < 0.05$ 에서 t 값이 3.122이며, p 값이 0.002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 자녀들의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 <가설 4>도 채택되었다.

V. 논의 및 결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인식할 때, 진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인식할 때, 진로 의사결정을 의존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자녀들이 기분이 상해 있을 때에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들은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불만을 자주 나타내며, 조그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내실 때가 많고, 다른 의견을 주장하려 하면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치고, 창피를 주거나 비웃기도 하는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들은 진로 의사결정을 의존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자녀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돕

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지각한 경우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한 경우 의존적으로 진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상용(2003), 김기만(2006), 이은선(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녀들이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해야 한다. 요즘은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각종 상담기관에서 좋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용적인 양육태도 방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가 조그만 관심과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들의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들의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에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는 안광자(2005)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자녀는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유형의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부모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을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의존적 진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고한 김형신(2009), 박진채·홍경자(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대학 진학과 직업세계에 진입을 앞둔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느 시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탐색을 하게 되고, 진학과 진로를 결정하는 합리성이 발달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관계를 살펴 보았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직

장일로 인해 청소년기의 자녀교육에 더욱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도 단절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직업이나 인생의 목표와 같은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어 대체로 어머니보다 사회활동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직업을 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배울 점을 찾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적게 움직여도 큰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그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버지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신뢰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화에 있어서도 명령·지시적인 말보다는 자녀들에게 ‘너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너를 믿으니깐’ 와 같은 대화를 통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신뢰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이 건넨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고, 아버지는 자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주며, 감정을 잘 이해해 주며 자녀들의 의견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할 때, 청소년 자녀들은 합리적으로 진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 즉, 자녀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 자녀들의 고민 중에는 분명 어머니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면 안되는 순간도 있다. 특히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한 아버지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때 아버지가 건넨 사랑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대단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며,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며 훨씬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아 갈 수 있으며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2] 국선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 권순명, “지각된 양육경험과 자아정체감, 통제귀인간의 관계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4] 김기만,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진로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5] 김상룡,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들의 MBTI 선호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6] 김성일, 김남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14, No.1, pp.75-89, 2001.

[7] 김애숙,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8] 김영숙,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9] 김윤희,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0] 김지순, “고등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1] 김형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 의사결정과의 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2] 남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13] 맹영임,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4] 민숙정,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5] 박지영,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16] 박진채, 홍경자, “가족의사소통, 합리적 진로의사결정,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Vol.1, No.1, pp.37-52, 2004.
- [17] 서우석,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과 관련된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18] 송양호,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의사결정유형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19] 안광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과 진로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0] 안무정, “중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1]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한 아동의 지각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 Vol.11, No.1, pp.45-64, 1982.
- [22] 우현주,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3] 이경애, “가정의 심리적 환경·자아존중감·진로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4] 이성도,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5] 이소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6] 이은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초,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7] 이은아,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의사결정 성향이 진로미결정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28] 조현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29] 최석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30] 최선정, “고등학생의 내·외 통제성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31] 하화주, “고등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대학진학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2] 한중혜,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33] 홍성훈, “모-자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34] T. Arroba, “Styles of Decision-Making and Their Use: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Vol.5, No.2, pp.149-158, 1977.
- [35] H. Barnes and D. H. Olson,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36] R. D. Enright, D. K. Lapsley, A. E. Drivas, and L. A. Fehr, “Par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utonomy and

- ident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9, pp.529-545, 1980.
- [37] M. Fishbein and I. B. Aizen, *Attitude Intention & Behavior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sachusetts: Addison-Wesley, 1975.
- [38] A. V. Harren,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4, pp.119-133, 1979.
- [39] A. V. Harren,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 [40] C. A. Hosley and R. Montemayor, "Fathers and adolescent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3rd ed.*, pp.162-178" New York: Wiley, 1997.
- [41] F. B. Hurlock.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Family Relation," *Child Development*, Vol 6, pp.86-98, 1978.
- [42] J. D. Krumboltz and D. S. Scherba, "Effect of training in rational decision making on the quality of simulated career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9, No.6, pp.618-625, 1982.
- [43] E. E. Maccoby and J. A. Martin,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New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pp.23-49, 1983.
- [44] R. P. Rohner,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Behavior Science Research*, Vol.15, pp.1-21, 1980.

저 자 소 개

허 정 철(Jeong-Cheol Heo)

정희원



- 1994년 2월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2006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다문화아동복지, 사회복지실천분야